

醫易三鍼法에 대한 연구

- 命理理論을 활용한 체질 분류 및 침치료법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丁彰炫*

Study on the Medicine-Changes Three Point Acupuncture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Chang-hyun Jeong

These days,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cupuncture is attracting our attention. As a result, many kinds of acupuncture method are developed. Especially, Saam's Acupuncture, Hwa Acupuncture are usually used in clinic, today. All of them use Five Transporting Point(五輸穴) and are based on theory of intergeneration/interinhibition among the Five Element(五行相生相克理論). They belong to Five Element Acupuncture(五行鍼法). This paper introduce the Medicine-Changes Three Point Acupuncture(醫易三鍼法) which is another form of Five Element Acupuncture and study its significance.

Key Word : theory of intergeneration/interinhibition among the Five Element, Medicine-Changes Three point Acupuncture, Five Transporting Point

I. 序論

최근 한의학계에서는 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침법들이 새로이 개발되거나 또는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숭巖鍼, 平鍼, 和鍼 등은 모두 五輸穴을 이용하고 오행의相生相克의 원리에 근거한 오행침법으로서 최근 임상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침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오행침법의 또다른 형태인 가칭 醫易三鍼法(이하 三鍼法이라 簡稱)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고찰하였다.

醫易三鍼法은 명리학의 이론을 활용하여 선천적인 臟腑氣血의 허실을 판단하고, 五行生克理論에 근

거해서 刺鍼穴位를 선정해서 補瀉를 시행하는 침법이다. 삼침법은 東靑 박용욱 선생이 정립한 것으로 아직 학계에는 정식으로 보고된 바가 없다. 삼침법은 명리이론을 응용하여 장부와 기혈의 허실을 판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명리이론을 응용한다는 점은 자칫 삼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을 부를 수 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렵고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三鍼法에서의 체질 판단과정은 간단명료하며, 침치료는 더더욱 간단하다.

명리학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이 오랜 세월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의학과 명리학이 어떤 공통

* 교신저자: 정창현,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2) 961-0337, jeongch@khu.ac.kr

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명리 이론을 응용하여 체질을 판단하는 방법, 이를 근거로 혈위를 선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II. 本論

1. 명리학과 한의학

명리학과 의학은 道家에서는 예로부터 命卜醫相 山 五術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뿌리가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런 생각은 다음과 같은 말에 잘 나타난다.

“術에는 다섯 종류가 있는데, 命術, 卜術, 相術, 醫術, 山術이니, 이것을 오술이라 부른다.”¹⁾

“이로부터 命術, 卜術, 相術, 醫術, 山述의 五術이 형성되었다.”²⁾

命은 인간 삶 전체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위주이고, 卜은 하나의 사건에 일어나는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며, 醫는 인체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위주이고, 相은 인체를 포함한 사물에 드러나는 형상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위주이며, 山은 인간의 본성 방면에서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山術은 의학의 양생방면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相術은 진단 방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命術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의학의 주류에 들지 못하고 항상 변방에 표류해왔다. 運氣醫學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五術은 각기 직간접적으로 의학과 관련되어 있다. 五術이 같은 뿌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은 아래 문장을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術이란 易의 원리를 이용하여 수련의 기술과 방법을 지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術에는 다섯 종류가 있는데, 命術, 卜術, 相術, 醫術, 山述이니, 이것을 오

술이라 부른다.”³⁾

“도가 양생술은 노자의 도를 핵심으로 삼고 易의 이치를 이론적 근간으로 삼고 五術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여 인체, 천체, 우주를 연구하는 하나의 독특한 기술이다”⁴⁾

“五術은 「易」과 서로 짝이 되어 나눌 수 없다. 「역」은 오술의 이치이며 오술은 「역」의 활용이다.”⁵⁾

이로 볼 때, 五術은 사실은 모두 도가양생술로서 易學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易學은 곧 변화의 학문으로 그 이론적 도구가 氣論, 陰陽五行論이다.

명리학과 한의학 역시 뿌리가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역의 이치를 그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만물은 끊임없이 운동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그 변화 가운데서 변화의 주체와 변화의 이치를 파악하고 나아가 조화와 부조화를 판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화를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둘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둘은 동일한 세계관, 동일한 인간관을 갖고 있으며, 그 사유방식이나 서술 도구가 모두 일치한다. 동일한 세계관과 인간관이란 곧 정체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인합일사상을 말한 것이며, 동일한 사유방식이란 取象比類를 두고 한 말이며, 서술도구란 음양오행, 천간지지 등을 말한 것이다. 이외에도 天人相應, 時空統一, 恒動循環, 動態平衡 등 여러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 공통점이 존재하게 된 것은 결국 다음 세 가지 핵심 이론을 명리학과 한의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氣論, 陰陽論, 五行論이다. 이 세 가지 이론이 한의학의 핵심이론임은 줄고 “黃帝內經의 思惟體系와 그 特徵”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⁶⁾

- 3) 왕리핑 지음, 금선학회 편역. 靈寶畢法. 서울. 여강출판사. 2009. p. 26.
- 4) 沈志剛, 劉亞丕 編著. 行大道. 北京. 中國世界語出版社. 1995. p. 67.
- 5) 沈志剛, 劉亞丕 編著. 行大道. 北京. 中國世界語出版社. 1995. p. 68.
- 6) 丁彰炫. 黃帝內經의 思惟體系와 그 特徵.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4). pp. 28-29.

- 1) 왕리핑 지음, 금선학회 편역. 靈寶畢法. 서울. 여강출판사. 2000. p. 26.
- 2) 沈志剛, 劉亞丕 編著. 行大道. 北京. 中國世界語出版社. 1995. p. 68.

모든 사물은 본체와 운행(작용) 두 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內經』의 氣論은 바로 본체에 대한 思惟體系라고 볼 수 있다. 이는 氣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주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사물의 작용방면에서 본체인 氣가 어떻게 運行하고 變化하는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고 체계는 陰陽五行論이 이에 해당한다.

『內經』에서 말하는 氣는 無時不有, 無處不在, 運動不息, 無形有微의 실체로서 자연만물과 인간생명의 근원이며, 동시에 운동변화의 주제이다.

『內經』에서 기의 운행 또는 작용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사유체계가 있다. 하나는 陰陽論이고, 다른 하나는 五行論이다. 음양의 승강과 진퇴소장운동은 천지만물의 본체인 기가 운동변화는 기본형식으로 사시의 계절 변화와 만물이 생성, 변화, 발전하는 규율이 되며, 만물은 모두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內經』오행론의 가장 큰 특징은 계통화이다. 즉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사물을 다섯가지로 계통화하고, 대표하는 사물의 속성에 따라 각 계통의 특성을 규정하였다. 동시에 이들 다섯가지 계통을 만물의 운동 변화를 주도하는 다섯가지 세력으로 인식하고, 만물의 운동 변화를 다섯가지 세력 간의 상호 유기적인 작용으로 파악하였다.

『內經』은 氣論과 陰陽五行論을 근간으로 자연의 이치, 인간 생명활동의 이치, 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독특한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天人相應觀, 形神合一觀, 時空統一觀, 恒動循環觀, 系統層次觀 등이다.

陸致極은 명리학의 시초를 왕충의 ‘自然命定論’이라고 하였다. 王充은 개인의 性命은 태어날 당시의 갖추어진 氣稟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⁷⁾ 그 이론적 바탕은 곧 元氣說이다.

“하늘과 땅이 기운을 합함에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다(天地合氣, 萬物自生).”⁸⁾ 『論衡·自然』

“하늘과 땅은 기를 머금고 있는 자연이다(天地, 含

氣之自然)”⁹⁾ 『論衡·談天』

“원기는 하늘과 땅의 정미로운 기운이다(元氣者, 天地之精微)”¹⁰⁾ 『論衡·四諱』

“만물이 생겨날 때는 모두 원기를 받는다(萬物之生, 皆稟元氣)”¹¹⁾ 『論衡·言毒』

“사람이 하늘에서 원기를 받을 때 각각 장수와 요절의 운명을 받으며 그에 따라 길고 짧은 형체가 세워진다. ……기로써 性을 만들고 性이 이루어지면 命이 정해진다(人稟元氣於天, 各受壽夭之命, 以立長短之形, ……用氣爲性, 性成命定).”¹²⁾ 『論衡·無形』

그는 기를 가지고 만물의 생성, 운동변화, 멸망, 진화를 해석하여 先秦이래 가장 계통적인 氣一元論을 제시하였다. 그의 운명론은 순전히 이같은 기일원론의 기초위에서 형성된 것이다.¹³⁾ 현재 命理學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의 타고난 기품의 음양오행구조를 가지고 일생의 명운을 推斷하는데, 이것이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태어난 순간의 기품에는 天和 地라는 공간적 특성과 年, 月, 日, 時라는 시간적 특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결국 태어난 순간에 펼쳐진 우주의 氣場이 한 사람의 命運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음양오행론 역시 명리학의 기초가 되며, 특히 오행론이 중시된다. 명리에서의 오행론은 한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물을 다섯가지 부류로 계통화함과 동시에 이 다섯 가지 부류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살피으로써 명운의 변화를 판단하고 있다. 상호유기적인 관계란 바로 오행간의 相生, 相克, 相乘, 相侮와 간지상호간의 相合, 刑, 衝, 破, 害 등을 포괄한다. 음양론은 사주 중의 干支가 갖는 음양 속성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 체질, 기혈의 다소 등을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9) 王充 論衡, 劉安 著, 高誘 注. 諸子集成.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p. 105.

10) 王充 論衡, 劉安 著, 高誘 注. 諸子集成.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p. 228.

11) 王充 論衡, 劉安 著, 高誘 注. 諸子集成.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p. 223.

12) 王充 論衡, 劉安 著, 高誘 注. 諸子集成.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p. 13.

13) 陸致極. 八字與中國智慧. 臺北. 益群書店. 1998. p. 36.

7) 陸致極. 八字與中國智慧. 臺北. 益群書店. 1998. p. 14.

8) 王充 論衡, 劉安 著, 高誘 注. 諸子集成.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2. p. 77.

끝으로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은 한의학이든 명리학이든 모두 조화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를 和, 中和, 太和, 平衡 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평형상태를 가리킨다. 오행 중의 어느 하나는 나머지 넷과 모두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 生하거나 生함을 당하거나 克하거나 克을 당한다. 명리학은 四柱의 八字에 내재된 오행세력의 이같은 유기적인 관계를 살펴 명운을 판단하고, 세력의 불균형을 평형상태로 만들 수 있는 인자(이를 用神이라 부른다)를 찾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는 한의학이 인체 내 여러 가지 부조화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과 의미상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한의학과 명리학은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것만으로 한의학과 명리학의 상호 접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2. 명리학의 기본이론

1) 四柱八字의 의미

사주팔자는 명리학의 기본틀로서, 時空을 포괄하고 있다. 사주는 年柱, 月柱, 日柱, 時柱를 가리키며, 각각 태어난 순간의 年, 月, 日, 時에 해당하는 干支로 표기한다. 명리에서는 각각의 柱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다. 年, 월, 일, 시 순서대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의미한다고 본다. 이것은 사주팔자가 갖고 있는 時間特性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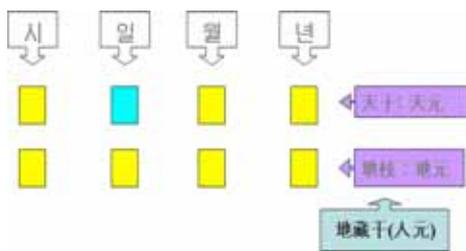


그림 1 四柱八字의 구조

八字는 각 柱의 천간과 지지를 합치면 모두 여덟 글자가 되므로 이를 합쳐서 八字라고 부른다. 天干은 天元이라 하고, 地支는 地元이라 하는데, 地支는 天

干的 뿌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地支는 내부에 天干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를 地藏干이라하고 人元이라 한다.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地	壬	癸	戊	甲	乙	戊	丙	丁	戊	庚	辛	戊
藏		辛	丙		癸	庚	己	乙	壬		丁	甲
干	癸	己	甲	乙	戊	丙	丁	己	庚	辛	戊	壬

표 1 地藏干

天元, 地元, 人元을 합쳐서 三元이라 하는데 이는 三才의 또 다른 표현으로 天地人統一을 의미하는 것이다. 任鐵樵도 “天干은 天元이요 地支는 地元이요 地支 속에 감추어진 것은 人元이다. 사람이 하늘에서 받는 命은 만 가지로 같지 아니하나 모두 이 三元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으니, 이른바 萬法の 으뜸이다(干爲天元, 地爲地元, 地中所藏爲人元, 人之稟命, 萬有不齊, 總不越此三元之理, 所謂萬法宗也).”¹⁴⁾라고 하였다. 또 명리학에서는 천간과 지지가 상생의 관계에 있으면 順으로吉하고 상극의 관계에 있으면 逆으로凶하다고 보았다. 任鐵樵가 “사람은 하늘이 덮고 땅이 실고 있는 한 가운데에 거처하여 위로는 하늘을 머리에 이고 아래로는 땅을 밟고 있다. 그러므로 八字는 天干과 地支가 順하여 어그러지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순한 것은 이어져 서로를 생하지만, 어그러진 것은 도리어 克해서 害가 된다. 그러므로 吉하고 凶함이 확연히 다르다(人居覆載之中, 戴天履地, 八字貴乎天干地支順而不悖也, 順者接續相生, 悖者反剋爲害, 故吉凶判然).”¹⁵⁾라고 하였는데, 이는 天氣와 地氣가 서로 通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八字의 공간적인 특성이다.

이처럼 사주팔자의 기본 구조에는 시공의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명리학은 時空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나의 사주팔자에는 내가 태어난 순간의 우주질서 즉 시공간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며, 나의 생명활동은 그 시공구조를 바탕으로 펼

14) 任鐵樵 增注, 袁樹珊 撰輯. 滴天髓闡微.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3. p. 11.

15) 任鐵樵 增注, 袁樹珊 撰輯. 滴天髓闡微.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3. p. 12.

쳐지게 된다는 인식이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2) 干支의 陰陽五行 및 장부배속

	木		火		土		金		水	
	陽	陰	陽	陰	陽	陰	陽	陰	陽	陰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地支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臟腑	膽	肝	小腸	心	胃	脾	大腸	肺	膀胱	腎

표 2 干支의 陰陽五行 및 臟腑配屬

천간의 음양오행 및 장부 배속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지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즉 巳午를 火에, 亥子를 水에 배속하는 것은 일치하지만, 각각의 음양배속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巳와 亥를 陰에 午와 子를 陽에 배속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그 반대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견해를 따라 巳와 亥를 陽에 午와 子를 陰에 배속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地藏干을 살펴보면 巳와 亥는 지장간이 모두 陽干이고, 午와 子는 陰干이 많다. 둘째, 火의 시작은 巳에서 시작하므로 巳가 陽이 되고, 水의 시작은 亥에서 시작하므로 亥가 陽이 된다. 셋째, 子午는 卯酉와 함께 軸으로서 안정된 것이므로 陰에 속하며, 五臟에 속한다.

3. 체질판단

체질판단은 우선 木火土金水 다섯가지 세력 중 어느 것이 가장 왕성한가를 따지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왕성한 세력에 해당하는 장부가 실한 것으로 본다. 단, 주의할 것은 여덟 글자가 각각 동등한 세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자리에 따라 그 가중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명리에서는 天干을 식물로 비유하면 줄기나 가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地支는 뿌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천간은 기능, 현상, 작용이며 지지는 기능이나 현상, 작용이 있게 한 본체이자 근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천간보다 지지가 중시되며, 지지 중에서

도 月支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그 다음으로 日支, 그 다음으로 年支와 時支 순서로 점차 그 영향력이 작아진다고 보았다. 대체적으로 전체 세력을 100으로 본다면 지지가 70, 천간이 30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된다. 지지 중에서는 월지가 30, 일지가 20, 년지와 시지가 각각 10정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근거해서 八字의 세력을 따져 오행 중 어느 세력이 가장 강성한가를 확인한다.

둘째, 음양의 세력을 따져보아 氣血의 허실과 장부의 허실을 구분한다. 천간과 지지를 합쳐서 양에 속하는 것이 많을 때는 인체의 腑와 氣가 실한 것으로 보고, 음에 속하는 것이 많을 때는 臟과 血이 實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木이 가장 왕성하고 陽에 속하는 간지가 많은 경우는 膽實, 氣實이며, 木이 가장 왕성하면서 陰에 속하는 간지가 많은 경우는 肝實, 血實이라고 판단한다.

4. 병증

오행 중 어느 한 기운이 왕성하면 나머지 기운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상극관계에 있는 두 기운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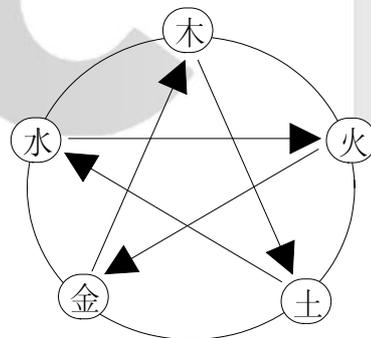


그림 2 五行生剋圖

예를 들어, 木이 가장 왕성하다면 木을 克하는 金과 木에 의해 克을 당하는 土가 억압을 받는 상태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장부가 허해진다. 따라서 이 경우는 肝膽의 실증과 함께 肺大腸의 허증, 脾胃의 허증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음양은 서로 번갈아 消長하므로 臟이 실하면 腑가 허하고 腑가 실하면 臟이 허하다고 본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膽이 실한 경우라면, 허한 곳은 金과 土에 해당하면서 陰에 속하는 肺와 脾가 된다.

증상은 대개 실한 장부와 허한 장부의 병증이 함께 나타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실하거나 허한 장부 어느 한쪽의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나타나는 증상을 세밀히 관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오장의 허실에 따라 호소하는 증상이 각기 다르므로 정확한 진찰을 거쳐 명리이론에 근거한 체질판단이 실제 증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肝膽이 허하거나 실하면 해독능력이 떨어져 많이 피곤해하거나[藏血], 근육이나 생식기능의 문제[主筋], 눈의 구조적 문제[主目], 손톱의 병변, 결단력의 약화, 인체 측면부위의 병변 등이 흔히 발생한다. 心小腸의 경우는 혈액순환의 문제와 그로 인한 관절질환[主血脈], 정신질환, 땀의 실조, 언어 장애[主舌], 가슴과 명치·겨드랑이 부위의 병변, 소장의 淸濁不分 등이 흔히 발생한다. 脾胃의 경우는 脾主運化하므로 식욕이나 음식물의 소화 흡수 전달 방면에 문제가 생기거나 입이나 입술 구강[主口脣]쪽의 질환이 생길 수 있고, 生血과 統血을 주관하므로 빈혈이나 출혈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水濕의 운화를 주관하므로 설사, 부종 등이 생길 수 있고 四肢를 주관하므로 권태, 사지무력 등이 생길 수 있다. 肺大腸의 경우는 기에 관한 문제[主氣], 해수·천식 등 호흡에 관련된 질환[主呼吸], 피부에 관한 문제[主皮毛], 목기도·코 쪽의 문제, 항문 및 대장 쪽의 문제 등이 주로 생긴다. 腎膀胱의 경우는 遺精·滑精 등 정액과 관련된 문제, 뼈·골수·뇌수·치아의 문제[主骨], 前陰과 後陰의 문제, 난청·이명 등 귀와 관련된 문제, 하복부와 허리의 병변 등이 주로 생긴다.

5. 침치료법

針穴은 해당 장부의 五俞穴을 사용한다. 한 穴位만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두 개, 세 개의 혈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기본은 세 혈위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三針法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한 혈위를 쓰는 경우는 대개 가장 실한 장부의 기운을 瀉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침은 대개 瀉하는 것이다. 나머지 두 혈위는 克과 侮를 당하여 허한 상태에 있는 두 장부의 기운을 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침은 대개 補하는 것이다.

이는 오행상극이론을 따른 것으로 가장 실한 장부의 기운을 먼저 덜어내고 그 다음에 허한 장부의 기운을 보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木氣가 가장 실한 경우는 肝膽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므로 간담을 瀉하고, 土氣와 金氣가 각각 克侮를 당하여 脾胃와 肺大腸의 기운이 허약하므로 脾胃와 肺大腸을 補한다.

6. 사례 16)

1) 이●자, 女, 500920-2○○○○○○○

(음력 50년 9월 20일 사시)

【내원일】 2006년 6월 13일

【主訴】 당뇨

3년 전부터 인슐린 48단위를 맞고 있음.

2달 전에 당뇨병 망막변성 수술을 받았음.

신장 기능이 약 30% 정도만 남아있다고 함(한약 복용을 거부).

매우 어지러움(1년반 전부터, 누워있으면 한참 후에 괜찮아지고 하루 종일 어지러움).

두통, 손저림, 좌측발바닥에 뭔가 붙은 것 같은 느낌.

소변이 좀 힘들 때 있음, 많이 붓는다.(오후에는 좀 빠짐, 얼굴, 다리)

左脈緩滑/右脈緩滑(寸澁), 좌측 脇痛 심함

16) 본 임상자료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한의원의 마해진 원장이 제공한 것임.

【명리변증】

時	日	月	年	
火/-	土/+	火/+	金/+	五行/陰陽
丁	戊	丙	庚	天干
巳	戌	戌	寅	地支
火/+	土/+	土/+	木/+	五行/陰陽

표 3 명리변증 예1

土的 기운이 가장 왕성하고, 음에 비해 양이 세다. 따라서 胃가 실한 체질이다. 당뇨병자의 경우 胃가 실한 사람이 많다.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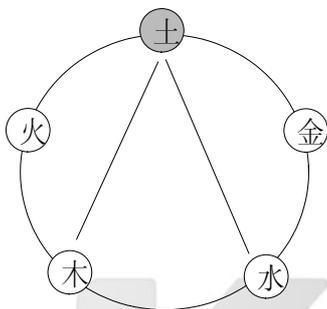


그림 3 임상례1

土가 實하고 氣가 實하므로 상대적으로 木과 水가 虛하고 血이 虛하다. 따라서 침은 胃氣를 瀉하고 肝氣와 腎氣를 補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胃經의 土穴인 足三里를 瀉하고 肝經의 原穴인 太衝¹⁷⁾과 腎經의 水穴인 陰谷을 補했다.

【경과】

- 2006.06.13 足三里-, 陰谷 太衝+
- 2006.06.23 어지러움 호전됨. 머리가 가볍다.
- 2006.07.04 脇痛 호전됨. 아직도 밥을 많이 먹으면 아픈 듯한 느낌이 있다.
- 2006.07.11 소변이 잘 나오는 느낌이 있음. 붓기가 덜하다.

2) 이●희, 女, 560221-20000000
(양력 56년 2월 21일 묘시)

17) 肝經의 木穴인 太衝을 쓰는 것이 원칙이나, 肝經과 大腸經의 경우는 原穴인 太衝이나 合穴을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내원일】 2006년 3월 29일

【主訴】 요통

2년 반 전 요통시작, 1년 반 후 할머니 치매 간호. 진단결과 3~4번 요추문제 발견.

2년 동안 자○한방병원에서 치료.

左脈緩滑/右脈緩滑(滑脈이 매우 뚜렷함).

右脇下壓痛拒按甚(간혹 心下痛徹背), 心下痞滿.

【명리변증】

時	日	月	年	
木/-	土/+	金/+	火/+	五行/陰陽
乙	戊	庚	丙	天干
卯	午	寅	申	地支
木/-	火/+	木/+	金/-	五行/陰陽

표 4 명리변증 예2

木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고 음보다 양이 많다. 따라서 膽이 實한 체질이다.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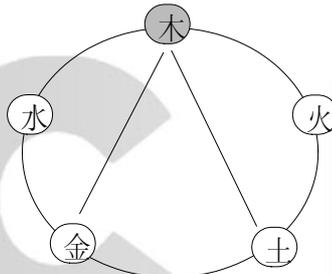


그림 4 임상례2

木이 실하고 기가 실하므로 상대적으로 土와 金이 허하고 血이 허하다. 따라서 침은 膽經을 瀉하고 脾經과 肺經을 補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膽經의 木穴인 足臨泣을 사하고 脾經의 土穴인 太白과 肺經의 金穴인 經渠를 보했다.

【경과】

- 2006.03.29 임습-, 태백 경거+ 자침 후 脇下痛 절반 이상 감소. 깊게 누르면 조금 아프다.
- 2006.03.31 협하통 거의 없어짐
- 2006.04.02 요통 많이 좋아짐. 아직 앉아있으면 통증이 있다.
- 2006.04.20 많이 호전. 감정의 변화에 따라 통증의

증감이 심하다.

2006.05.15 평소 요통은 거의 느끼지 않음. 약 2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3) 양●●, 女, 830712-20000000

(음력 83년 7월 12일 오시)

【내원일】 2006년 6월 23일

【主訴】 피부질환

이마부위, 관골부위에 검붉은 여드름이 생김.

장무력증 진단. 혼자 힘으로 대변을 보기가 힘들다.

脈滑, 좌맥이 우맥에 비해 상당히 약한 편.

心下痞硬, 兩脇下痛. 우측 천추 통증. 우측 소복부 압통 심.

【명리변증】

時	日	月	年	
水/+	金/+	金/+	水/-	五行/陰陽
壬	庚	庚	癸	天干
午	辰	申	亥	地支
火/-	土/+	金/-	水/+	五行/陰陽

표 5 명리변증 예3

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고 양이 음보다 많다. 따라서 大腸이 實한 체질이다.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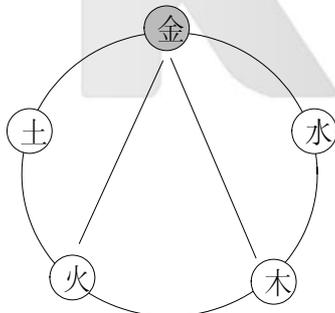


그림 5 임상례3

금이 실하고 氣가 실하므로 상대적으로 木과 火가 허하고 血이 허하다. 따라서 침은 大腸經을 瀉하고 肝經과 心經을 補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大腸經의 金穴인 商陽을 사하고 肝經의 原穴인 太衝(木穴인 大敦을 대신해서)과 心經의 火穴인 少府를 보했다.

【경과】

2006.06.24 아침에 혼자 힘으로 변을 봤음. 몸이 매우 가볍다.

2006.07.24 전반적인 몸 상태가 좋아졌음. 몸이 편하다.

2006.08.29 피부 증상 개선. 여드름의 크기가 작아졌고 숫자도 좀 줄었다.

7. 醫易三鍼法の 의의

의역삼침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학적 가치가 있다. 첫째, 새로운 형태의 오행침법으로서 오행이론의 응용폭을 넓히고 鍼法の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五行生克理論을 활용한 대표적인 鍼法으로 畧巖鍼法, 和鍼法 등이 있다. 세 가지가 모두 오행이론을 응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서로 다르다. 사암침법은 『難經69難』의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¹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自經의 自穴(例:木經의 木穴, 火經의 火穴, 土經의 土穴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삼침법은 自經의 自穴을 직접 자침한다. 또 사암침법에서는 自經에서 두 穴位를 사용하는데 補瀉가 서로 상충한다. 즉 한 경락에서 동시에 補瀉를 시행하는 모순이 있다. 또 사암침법에서는 상생과 상극을 모두 활용하지만, 삼침법에서는 주로 相克을 활용한다. 和鍼法은 사암침법에 비해 삼침법과 좀더 비슷하다. 즉 木이 實하면 金이 허해지고 火가 실하면 水가 허해진다거나, 腑가 實하면 臟이 虛하고 臟이 實하면 腑가 虛하다고 본 것은 둘의 공통점이다. 단, 삼침법이 허하거나 실한 장부를 직접 보사하는 데 비해, 和鍼法에서는 그 장부가 허하고 실한 것은 그 이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아, 그 원인이 되는 장부를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해당 장부를 다스린다. 예를 들어, 木實金虛한 것은 水虛火實이 근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차로 補水瀉火하고 그 다음으로 補金瀉木한다.¹⁹⁾ 이

18)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 120.

19) 감철우, 박동일. 五行和鍼法에 대한 연구(臟方을 중심으로),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5. 19(2). pp. 363-369.

는 『難經·75難』의 “瀉南補北”說²⁰⁾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처럼 한 가지 이론을 응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오행이론의 응용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병증에 대해 각각의 침법에 따라 사용하는 혈위가 달라지는 모순을 설명해야 한다. 아마도 이 문제는 각 침법에 대한 심도있는 비교 연구가 진행되면서 차차 해결되리라 여겨진다.

두 번째 의의는 체질과 병증을 판단하는 데 있어 명리이론을 응용함으로써 명리체질변증이라는 새로운 변증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三鍼法은 명리이론을 응용하여 臟腑와 氣血의 선천적인 허실을 파악하고 이를 진단과 치료의 근거로 삼는다. 결국 이 과정은 하나의 독립적인 변증시차과정이다. 이외에도 삼침법을 시행함으로써 장부변증, 팔강변증, 육경변증 등 기존의 변증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여러 변증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변증방법으로 명리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III. 結論

지금까지 醫易三鍼法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쓴 의도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새로운 형태의 오행침법을 소개함으로써 오행이론이 실제 임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오행침법이 개발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함이다. 다른 하나는, 명리학과 한의학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소위 명리체질변증이라는 새로운 변증 가설을 제기하고자 함이다. 명리변증을 통해 기존의 변증법으로 다 알 수 없었던 부분, 특히 선천적인 소인, 내면의 심리적인 소인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명리변증의 정확도가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參考文獻

<논문>

1. 감철우, 박동일. 五行和鍼法에 대한 연구(臟方을 중심으로).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5. 19(2).
2. 丁彰炫. 黃帝內經의 思惟體系와 그 特徵.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4).

<단행본>

1. 任鐵樵 增注, 袁樹珊 撰輯. 滴天髓闡微.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3.
2. 왕리핑 지음, 금선학회 편역. 靈寶畢法. 서울. 여강출판사. 2000.
3. 陸致極. 八字與中國智慧. 臺北. 益群書店. 1998.
4. 沈志剛, 劉亞丕 編著. 行大道. 北京. 中國世界語出版社. 1995.
5.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20)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 28.